

‘저지른 사람들’의 다정한 응답을 바라며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자신이 속한 어른 세대에 대해 ‘우리가 저지른 사람들인데...’라고 말했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와 나눈 대화에서였다. 지구의 현재 모습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이 있는 세대라는 자조적인 고백으로 들렸다. 공적인 일로 몇 번 빈 인연이 있어 그분이 지닌 올곧은 성격과 말씀의 담백함을 알고 있다. 빈말이 아님도 안다.

1960~70대의 생애 주기는 세계 탄소배출량 증가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급속한 산업 성장 속에서 자동차 소비가 급증했다. IT 발달로 전력 사용량이 늘었으며, 중국 등 신흥국들의 경제 추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화석연료 발전소는 쉬지 않고 가동되었다. 1950년부터 1970년까지 탄소배출량은 매년 약 5~6%씩 가파르게 치솟았다. 탄소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온 시기다. 2000년 연간 250억 톤이던 배출량은 2010년 약 350억 톤으로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하더니 세계는 다시 탄소 배출을 늘렸다. 2024년에는 무려 370

억 톤을 넘으며 또다시 정점을 찍었다. AI와 데이터센터, 기후위기로 인한 냉난방 수요 증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늘어난 전력 사용, 이 모두가 더해져 기후위기는 인류에 더 깊고 더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 청소년 기후 소송에서 미래세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탄소중립 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NDC)를 명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도한 위험을 떠넘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결정이었다.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이 결정이 있은 후 무려 700여 일이 지나서야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의결했다. 특위 활동이 끝나는 시점인 8월 말까지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저지른 자들’에 속하는 그들이 법안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데 사용한 시간은 단 147분에 불과했다.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필요했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정작 공론 과정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조기 감축 경로’마저 배제되어 있었다.

8월 3일 월요일, 국회 앞 한낮 기온은 37℃에 육박했고, 아스팔트 표면 온도는 70℃ 가까이 치솟았다. 그 뜨거운 거리에 기후행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레넷’ 청년들이 있었다.

그들은 유쾌한 춤판을 벌였다. 특위에 소속된 의원들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기후위기 특위 의원들에게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 의원’이 되어 달라는 퍼포먼스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반드시 ‘조기 감축 원칙’을 담은 내용으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메시지도 전했다. 국회가 결단해 달라는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의원도, 그 진심을 꺾은 의원도 있을 것이다.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청년’을 외친다. 온갖 청년 관련 공약이 무성하다. 지방선거도 끝났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아직 멀리 있다. 청년들이 땀별 아래 오직 유쾌함만으로 거리에 섰을까. 좌절과 분노, 실망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정적 감정은 뒤로한 채 즐겁고, 우아하며, 정중하게 국회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청년은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메시지였다.

이제 대부분 ‘저지른 사람들’로 채워진 국회가 답해야 한다. 폭염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쾌한 춤으로 간절함을 전한 그 다정함과 품격을 닮은 응답이어야 한다. ‘저지른 사람들’의 부끄러움은 좋은 응답을 이루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청년들의 쏟아지는 땀별 같은 눈들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고정도 변동도 겁나는 대출금리



기지 수집

나 유 리
(금융부)

대출을 앞둔 차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정금리를 선택하자니 당장 금리가 부담스럽고, 변동금리를 택하자니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불안하다. 어느 쪽을 골라도 마음 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대출시장에서는 고정금리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43.9%로 지난해 9월 47.0%보다 낮아졌다. 반면 변동금리 비중은 같은 기간 53.0%에서 56.1%로 높아졌다.

차주들이 변동금리로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르면서 고정형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당장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 상품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동금리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코픽스 등 변동형 대출의 준거금리 역시 상승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변동금리의 이자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차주가 처한 상황은 아이러니하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까 걱정돼 고정금리를 선택하려 해도 이미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고, 당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를 택하면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대출상품을 설명하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선택에는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 두 상품 모두 부담스럽다면 차주에게 남는 것은 ‘어떤 금리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덜 아픈가’라는 고민뿐이다.

특히 대출금리 0.1%포인트의 차이는 금융시장에서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수억원을 빌린 차주에게는 매달 지출해야 하는 돈의 문제다. 여기에 식료품과 공공요금 등 생활비까지 오르면 가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진다.

가계부채 관리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미 대출을 안고 살아가는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얼마나 전가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차주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대출시장을 만드는 것 역시 금융정책의 몫이다.

/yul11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1일 (음 6월 2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오늘 모든일이 잘 풀립니다. 60년생 너무 자만해진 안되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72년생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4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49년생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61년생 세상 어느 구석에도 갈 곳은 없습니다. 73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85년생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50년생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입니다. 62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74년생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86년생 닷 늦고 기억 자도 모릅니다.



51년생 귀인이 귀화를 찾아왔으나 귀하는 보내고 말았습니다. 63년생 도하는 것은 자식들의 도리입니다. 75년생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87년생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52년생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64년생 지금은 더욱 열심히 할 때입니다. 76년생 게으름 피우면 귀하만 손실을 보게 됩니다. 88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아 일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53년생 아직 설 때가 아닙니다. 65년생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77년생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하루입니다. 89년생 경거망동을 삼가고 신중히 행동하면서 집중력을 높이세요.



54년생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66년생 일을 잘 성공시켜 보고자 했으나 까딱 잘못 됩니다. 78년생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90년생 음식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55년생 장기적으로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67년생 상상이외의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자제하며 행동하세요. 79년생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91년생 좋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56년생 손리에 역행하지 마세요. 68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성사됩니다. 80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습니다. 92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될 것입니다.



57년생 걱정없이 편안한 날입니다. 69년생 뽀족한 것을 다룰 때는 평소보다 더 조심하세요. 81년생 승진운이 있습니다. 93년생 만족감에 유유자적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58년생 원하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70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82년생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94년생 대중교통이용을 조심하세요.



59년생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71년생 오늘은 체력적으로 힘든 하루입니다. 83년생 모든지 양보하면 갑니다. 95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김상회의四季

그저 달릴 뿐



‘포레스트 검프’란 영화를 기억하실 것이다. 불편한 다리, 조금은 떨어진 지능을 가진 외톨이 소년 포레스트 검프는 주변 포레스트의 괴롭힘을 받는 왕따 같은 처지지만 헌신적이며 따뜻한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순수하고 역시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지니고 있다. 점점 성장하면서 그는 자신이 달리기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포레스트의 괴롭힘에서 달아나다 스스로 발견한 재능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달리기를 즐겼다. 그저 달리는 것이다. 그러다 그가 진학한 대학에서 달리기를 잘하는 포레스트 검프를 미식축구로 발탁하고, 뛰어난 신체적 재능으로 군대에 들어가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둬 무공훈장도 받게 되며, 보통사람들보다 뭔가 부족했던 그가 결국은 성한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는 몽클란 감동의 과정을 보여준다.

물론 그 과정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금수저를 꿈꾼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태생적으로 가질 것을 다 가진 그런 존재 말이다. 만약 필자에게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나고 싶냐고 묻는다면 부러울 수는 있지만 그다지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가질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금수저라는 말도 오해가 많은 단어다. 재력과 명예 또는 권력을 가진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다고 그에 비해 정신적으로도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으며, 그 반대 경우가 더 허다하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에 무료함과 권태로 인해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 물질에 인생을 허비하고 망친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던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가나 재벌가라 할지라도 인생 여정을 보자면 계속되는 영화를 누린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우리는 각자의 타고난 업력을 재료를 달릴 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7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7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4	3	9			
2		6	8			7
					3	
			8	4		3
	2				4	
3		2	9			
	9					
4				1	5	8
		7	4		3	2



1			8			6	3
9				1		7	5
		4		7			
	3			8			
			6		3		
				1			3
				5		6	
7	8		3				4
6	2			8			1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6	8	8	7	9	9	1
8	7	9	1	9	6	8	7
7	9	1	8	7	9	7	6
9	9	8	7	6	7	1	8
6	1	7	9	9	8	7	8
8	7	7	8	1	6	9	9
9	8	9	7	7	8	1	6
7	7	6	9	1	8	9	8
1	8	7	6	8	9	7	9

1	6	8	8	7	9	9	1
7	7	9	6	9	8	1	8
7	8	9	7	1	8	6	7
8	7	6	7	1	9	9	7
8	7	1	8	7	9	6	1
9	9	1	7	8	6	7	8
6	1	8	9	7	7	9	8
9	7	7	1	8	7	8	9
8	9	7	9	6	8	7	1